



OPP 필름 및 CPP 필름 시장 동향

Market Trend of OPP Film&CPP Film

올들어 우리 나라 경기전망은 시계 제로이다. 체감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대다수 서민들의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들의 금융완화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회복세를 제외한 유럽, 중국의 둔화가 지속돼 여전히 회복이 불투명하다.

실물경제의 하락과 가계소비의 둔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재 우리 포장업계가 받고 있는 고통은 지난 포장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면서 마이너스에서 회복되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중동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유가의 안정세가 지속될 지 여러 가지 변화에 맞물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 농산물 가격의 반등 가능성,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불안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움직임 등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침체될 수도 있다.

이같은 경제 흐름속에 우리 포장업계 대표적인 원자재 OPP와 CPP 필름 시장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감소와 수입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가격인하로 이어지고 설비 증설로 인한 판매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시장질서가 무

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원료인 PE 및 PP가격이 환율과 수출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내수가격이 인상되었으나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식품 및 제과사인 유저들로부터 가격 인하 압력까지 받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에 대한 외침은 공염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적 강도, 유연성, 투명성 등 우수한 적성을 갖고 있으며 수산가공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면류포장 등에 주로 쓰이는 OPP 필름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은 지난해와의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

70,000톤으로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대림산업(주)은 지난해 보다 1라인 늘어난 3개 라인에서 생산량이 2배이상 늘어나 수출 31,500톤, 내수 38,500톤이지만 생산량에 대한 판매 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70,000톤의 생산능력은 두꺼운 필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지만 얇은 필름을 기준으로 하면 45,000톤 정도가 된다.

이와 비슷한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주)삼영화학은 4개라인과 6호기, 신규라인을 합쳐

[표 1] OPP 필름 생산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3	70,000	31,500	19,000
(주)삼영화학	4	45,800	4,800	32,000
울촌화학(주)	3	38,000	6,000	32,200
JK머티리얼즈(주)	1	12,000	0	8,500
(주)필맥스	3	28,000	4,142	15,048
(주)화승인더스트리	3	30,000	9,946	17,610

45,800톤을 생산하여, 수출 4,800톤, 내수 32,000톤으로 지난해 보다 수치상 늘었지만 신규 라인 증설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실제 생산라인 증설의 기대에 못미치는 판매량이다.

울촌화학(주)도 1대 증설해 올해부터는 3개 라인에서 38,00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수출 6,000톤, 내수 32,000톤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다음으로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지난해와 변함없는 3개 라인에서 수출 9,940톤, 수출 17,610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국내시장 침체와 맞물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필맥스 역시 지난해와 같은 3개 라인에서 28,000톤을 생산하여 수출 4,142톤, 내수 15,048톤을 판매해 지난해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제이케이머티리얼(주)는 1개 라인으로 생산능력 지난해보다 많아진 12,000이지만 수출은 지난해 1,000톤에서 올해 0톤, 내수는 8,500

톤으로 내수 판매량을 늘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OPP 필름 생산라인은 지난해보다 3개 라인이 늘어났고 생산능력도 121,700톤 늘어났다.

반면 공급능력 확대에 비해 판매량은 줄어들고 공급과잉과 수입저가 제품의 영향으로 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OPP필름은 글로벌 수요둔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가 이어지고 동시에 소량, 소포장화로 진전되면서 피름업체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되고 있다.

CPP 필름 역시 OPP 필름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생산라인은 1개라인이 증설되었으나 생산능력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예상치 못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CPP 필름의 경우 (주)유상이 1개라인 늘어난 5개라인에서 8,400톤을 생산하여 수출 4,300톤, 내수 3,900톤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하면 수출에서 많은 물량이 늘었고 내수가 줄어든 상황을 보이고 있다.

삼민화학공업(주)는 지난해와 같은 3개라인의 생산능력을 3천톤 늘린 15,000톤이지만 수출 1,000톤, 내수 11,000톤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있다.

울촌화학(주)는 1개 라인의 생산능력 10,000톤 가운데 생산량을 9,000톤으로 낮추고 수출 1,000톤, 내수 7,200톤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필맥스 역시 2개 라인의 생산능력을



특 집

9,000톤으로 늘렸으나 판매량은 수출 1,021, 내수 5,034톤으로 지난해 보다 상당량이 줄었다.

(주)성일화학도 4개라인의 생산량을 지난해 보다 늘린 4,650톤이지만 수출 50톤, 내수 2,200톤으로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다.

이처럼 OPP 및 CPP 필름 생산업체들의 수요예측이 경기침체와 외국산 저가제품들의 대거 유입으로 빚나가긴 했지만 시장에서의 확대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자구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시장의 반전과 외국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필름업체들에겐 장기간 불황의 늪을 헤쳐나가야 문제가 펼쳐져 있어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이라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필름업체들의 판매부진은 장기 경기침체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지만 여기에 유저들의 가격인하 압력과 스내, 건과를 비롯한 수

입제품의 증가로 시장경쟁력 약화, 소비자들의 알뜰구매 등이 겹친 복잡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시장 역시 중국산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저가 제품과 경쟁에서 밀려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저가 제품의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볼 수 있다.

내수경기의 부진은 수출에서도 이어져 유동적인 원재료 가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설비증설과 외국 제품과의 경쟁이라는 악재들이 겹쳐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오히려 OPP, CPP 필름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유저들의 가격인하 압력에 필름 공급업체들의 고통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전량 원유를 수입해 각 재료, 제품으로 분리 가공 생산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경제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필름 생산업체들은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저렴한 수입 원료의 사용을 검토하고 수요가 줄고 있는 일반 식품용 필름을 산업용으로 전환하여 대체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쉽게 풀리

[표 2] CPP 필름생산 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3	15,000	1,000	11,000
(주)삼영화학	1	5,400	2,400	3,000
(주)성일화학	3	4,600	50	2,200
(주)유상	5	8,400	4,300	3,900
울촌화학(주)	1	9,000	1,200	7,200
(주)필맥스	2	9,400	1,021	5,034

지 않을 전망이다.

필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연포장 업체들 역시 물량 감소로 인한 가동률 하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산 저가 필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포장용 필름 생산업체들에게 반갑지 않은 상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결국 국제유가, 환율문제에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주변정세와 국제 수출가격, 설비문제가 업계의 이슈로 떠올라 공급과잉속에 수요감소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필름업계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길어진 장마와 다가올 무더위를 조화롭게 이겨나가듯 올해 심화된 판매부진을 만회할 시장

의 활성화 대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요확대, 저가 수입제품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마련을 통해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려울때이면 흩어져 제살을 깎는 경쟁을 펼쳐왔지만 그것이 업계를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포장용 필름 업계가 계속된 어려움을 헤쳐나올수 있었던 것은 지혜를 모아왔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분명 문은 열려져 있고 길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